

## 서밋엔터테인먼트, <뉴 문>의 성공과 딜레마



<뉴 문>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서밋엔터테인먼트는 할리우드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전세계적으로 4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전편 <트와일라잇>에 이은 <뉴 문>의 박스오피스

첫 주 수익은 1억 4,000만 달러. 이는 역대 할리우드 오프닝 기록 중 3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원작에 무한한 애정을 품어온 10대 소녀 관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흥행에 큰 뒷심으로 작용했

다는 분석이다.

개봉 5주차(12월 18일 기준) <뉴 문>의 북미박스오피스 성적은 벌써 2억 7,159만 달러를 넘어섰고, 전세계 흥행 수익은 6억 3,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이 영화의 제작비가 5,0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흥행 성공이라 할 수 있다. <트와일라잇> 프랜차이즈 하나로 서밋엔터테인먼트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흥행의 기쁨을 만끽하기 무섭게 서밋엔터테인먼트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2010년 6월 30일 개봉 예정인 3편 <이클립스>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새롭게 착수해야 할 <브레이킹 던>은 여러모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자 4번째 시리즈 영화가 될 <브레이킹 던> 제작을

앞두고 서밋은 이 작품을 2부작으로 만들 것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브레이킹 던>을 2부작으로 나눠 제작할 경우, 원작자인 스테파니 메이와 새로운 영화화 합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뉴 문>을 성공으로 이끈 크리스 웨이즈 감독을 영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타진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할리우드 스타급 배우로 올라선 주연배우 로버트 패틴슨, 크리스틴 스투어트, 테일러 로트너 등과의 재계약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출연료를 패키지로 묶었던 3편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리즈의 엄청난 성공으로 이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수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과 재계약하려면 막대한 출연료가 소요될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전체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브레이킹 던>의 제작을 앞두고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 서밋의 향후 행보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Hot News



#### 파라마운트, 초저예산 프로젝트 개발 착수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대대적인 성공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의 투자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 가을 파라마운트가 배급한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1만 5,000달러의 소규모 제작비로 북미에서만 1억 7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히트작. 게다가 파라마운트가 이 영화의 북미 배급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단 30만 달러에 불과하다.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성공에 힘입어 파라마운트는 앞으로 연간 100만 달러를 투자해 10~20편의 초저예산 영화를 기획,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작품당 투자되는 최대 규모의 돈은 약 10만 달러. 이 자금으로 제작되는 영화

들 중 앞으로 몇 편이 극장에서 개봉하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파라마운트는 이 영화들이 다시 스튜디오 규모의 빅 버저 영화로 제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튜디오 규모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화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영화 인력의 발굴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랜스포머> <스타트렉>과 같은 대규모 예산의 프랜차이즈 영화에도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파라마운트사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 2009년 할리우드, 새로운 이정표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화 박스오피스 매출은 전년 대비 8% 상승했다. 더불어 관객 수도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첫째 주까지 미국 박스오피스 총 매출 액수는 94억 8,000만 달러. 이는 역대 박스오피스 매출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96억 4,000만 달러에 이미 근접한 기록이라 눈길을 모으고 있다(작년 같은 기간 대비 미국 박스오피스 총 매출액은 87억 8,000만 달러였다). 지금까지의 매출 기록과 더불어 12월에



개봉한 20세기폭스의 <아바타> <앨빈과 슈퍼밴드 2>, 워너브러더스의 <셜록 홈즈> <인빅터스>의 개봉 스코어를 더하면, 2009년 미국 박스오피스 매출 수익은 역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 된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09년 박스오피스 성적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어느 해보다 성적이 좋았던 봄 시즌 흥행 성적과 전년 대비 11%나 증가한 10월·11월 시즌의 흥행 스코어 때문이라는 것. 작년 10월·11월에 개봉한 영화 중 1억 달러 이상의 스코어를 기록한 영화가 <마다가스카 2> <007 킴 오브 솔러스> <트와일라잇>까지 총 3편뿐이었던 데 반해, 올 10월·11월 개봉작 중 1억 달러 이상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무려 5편이나 된다. <뉴 문> <2012> <크리스마스 캐롤> <블라인드 사이드> <커플 테라피: 대화가 필요해>가 그들이다.

### FOCUS ON

#### 모로코, 로케이션 촬영지로 인기



할리우드 프로듀서들에게 최근 모로코가 촬영지로 각광 받고 있다. 모로코 영화센터에 따르면, 모로코는 2005년 8편의 해외 로케이션을 유치했고, 2007년 약 20편의 해외 로케이션 유치에 성공했다고 한다. 올해도 워너의 <섹스 앤 더 시티 2>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브라질과 스페인이 공동제작한 1,500만 달러 예산의 <로프>가 모로코에서 촬영됐다. 또한 <번하>의 TV드라마 리메이크작도 모로코에서 촬영을 마쳤다. 할리우드에서 진행된 핫 프로젝트들 중 모로코에서 촬영이 이뤄진 대표적인 작품은 <본 얼티메이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바디 오브 라이즈> 등이 있다. 모로코가 할리우드 프로듀서들에게 사랑받는 데에는 이국적인 경관도 한몫 했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면세 제도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 미국 최대 메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그룹 탄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컴캐스트와 GE의 NBC 유니버설 인수 계약이 드디어 확정, 공식 발표됐다. 이번 계약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프랑스 비방디 그룹이 가진 NBC 유니버설의 20% 지분 매각 가격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비방디 그룹의 매각 가격은 58억 달러. 이를 통해 NBC 유니버설의 지분 전량을 보유하게 된 GE는 다시 51%의 지분을 컴캐스트에 매각했다. 각각 51%, 49%의 지분을 나눠가진 컴캐스트와 GE는 NBC 유니버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업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향후 GE는 나머지 지분 49%도 매각할 계획으로 궁극적으로는 미디어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합작법인은 컴캐스트 이사진 3명과 GE 임원진 2명으로 이뤄진 이사회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새 법인의 CEO는 현 NBC 유니버설의 대표인 제프 주커가 연임할 계획이다.

주커는 최근 USB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번 인수합병 계약의 핵심은 NBC 유니버설이 종합 글로벌 기업에서 단일 미디어사업에 포커스를 둔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이번 인수합병은 앞으로 NBC 유니버설에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공중파 방송국을 인수합병하게 된 이번 계약은 미국 내 공중파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2,4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컴캐스트는 이

번 계약이 완료되면 NBC 유니버설의 채널들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NBC 유니버설 인수합병으로 인해 컴캐스트는 미국의 거대 방송국 네트워크 기업인 CBS, ABC 방송국 등과 함께 북미 3대 방송국에 포함되는 대형 미디어기업이 된다.

한편, 이번 인수합병 건으로 급속하게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이는 컴캐스트의 젊은 CEO 브라이언 로버츠다. 약 300억 규모의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로버츠는 뉴스 코퍼레이션의 미디어 제벌 루퍼트 머독에 버금가는 파워맨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2000년대 들어 캐나다 시그램에서 프랑스 비방디 그룹, 다시 미국 GE, 이번 컴캐스트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주인은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바뀌고 있다.

### 릴라이언스의 할리우드 행보

드림웍스의 투자 파트너이자 인도의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사인 릴라이언스 빅 엔터테인먼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드림웍스와 3억 2,500만 달러의 투자 계약을 맺은 릴라이언스사가 최근 할리우드 내 프로덕션과 10번째 퍼스트 룩 옵션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릴라이언스사와 최근 퍼스트 룩 옵션을 체결한 회사는 론 하워드 감독의 이매진엔터테인먼트사, 브래드 피트의 영화제작사 플랜 B 등이다. 릴라이언스사가 퍼스트 룩 옵션을 맺은 회사들은 주로 자신의 프로덕션을 설립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할리우드 A급 배우 및 감독들. 그동안 릴라이언스사와의 계약 체결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조지 클루니, 니콜라스 케이지, 짐 캐리, 줄리아 로버츠, 톰 행크스, 브렛 레트너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등이다.

릴라이언스사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벌써 20여 개 정도다.

### 스필버그, 결국 <하비>에서 하차

스티븐 스필버그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던 <하비>의 제작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6개월 동안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해온 스필버그가 리메이크작 <하비>의 연출에서 결국 하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세기 폭스와 드림웍스가 합작투자한 이 프로젝트에서 스필버그가 손을 뗀 이유는 주연 캐스팅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스필버그는 1950년 원작 영화에서 제임스 스투어트가 연기한 주인공 역으로 톰 행크스를 원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그 뒤를 이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주인공으로 섭외하려 했으나 이 역시 시나리오에 대한 이견으로 불발됐다.

스필버그의 하차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20세기폭스사다. 폭스2000으로부터 <하비> 프로젝트를 건네받은 20세기폭스는 톰 로스만 회장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영화의 연출자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 노력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 폭스 측은 스필버그의 프로젝트 하차에도 <하비> 리메이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추후 스

필버그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재합류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틴틴의 모험: 유니콘의 비밀>의 프로덕션을 마친 스필버그의 차기작은 <하비>의 하차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의 새로운 차기작 후보로 물망에 오른 작품은 <윈윈>의 시나리오 작가 토니 쿠쉬너가 시나리오 작업을 한 링컨의 전기영화와 어린이 만화책을 원작으로 하는 <39개의 실마리> 등이다. 한편, 인도 릴라이언스사와 드림웍스의 새로운 협력관계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도 드림웍스의 대표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후속작은 최대한 빨리 결정될 것이라는 업계의 추측이다.

### <아바타> 흥행 돌풍, 어디까지 갈까?

제임스 카메론의 화제작 <아바타>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지난 12월 18일, 북미 3,452개 극장에서 개봉한 <아바타>의 개봉 당일 성적은 2,700만 달러. 이 성적은 자정 개봉에서 생긴 수익 350만 달러를 모두 포함한 스코어다. <아바타>의 오프닝 역대 순위는 33위. 지난달에 개봉해 역대 오프닝 기록을 세운 <뉴 문>의 7,270



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스코어다. 한편, 역대 12월 개봉작 중 <아바타>의 오프닝 성적은 3위. 역대 12월 개봉 1위작은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3,450만 달러)이고,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3,010만 달러)가 그 뒤를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다소 긴 러닝타임의 영향 때문일까. 카메론 감독이 내놓은 12년 만의 화제작치고는 다소 부족한 오프닝 성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카메론의 전작인 <타이타닉>의 흥행 성적이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개봉 둘째 주 금요일부터 첫 주 대비 40% 상승했고, 주말 전체 대비 24% 수익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흥행 폭선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1997년 11월 19일 개봉한 <타이타닉>의 오프닝 성적은 870만 달러였다.

### FOCUS ON

#### 마블에서 물러나는 마이젤 회장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데이비드 마이젤이 마블을 떠난다. 그의 퇴임일은 디즈니와 마블 스튜디오의 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12월 31일이다.

2004년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으로 취임한 마이젤은 5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을 결성, 마블이 자신들의 원작 캐릭터 영화에 직접 제작,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던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아이언 맨> 시리즈와 <인크레더블 헬크> 시리즈 등이다. 데이비드 마이젤은 마블을 떠나도 향후 개봉 혹은 제작 중인 <아이언 맨 2> <토르> <캡틴 아메리카>의 프로듀서 자격을 이어갈 예정이다.

마이젤이 마블을 떠난 후, 스튜디오의 책임을 맡게 된 이는 프로덕션 부문 사장인 케빈 페이지다. 따라서 당분간은 페이지가 디즈니의 리치 로스 회장에게 마블에 관한 업무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